

일루미네이션부터 미륵사지까지 인생샷 ‘핫플’

‘한없이 옛스럽지만 또 늘 새롭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는 백제문화의 고도(古都) 익산을 찾을 때마다 드는 느낌이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같은 유구한 세월을 버틴 백제 유적들이 유명하지만, 도시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아가페 정원이나 서동공원처럼 젊은 감성들이 좋아할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도 만날 수 있다. 한 번 나들이에 전혀 다른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있기에 익산여행길은 늘 기대가 된다.

서동공원, 대형 LED 조형물 장관
아가페정원의 정갈한 숲길 눈길
초겨울의 미륵사지서 정취 만끽

●화려한 빛의 축제, 서동공원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 유적, 익산세트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들이 있지만, 지금 익산을 찾는다면 먼저 가볼만한 곳이 서동공원이다. 금마저수지를 따라 조성한 13만2231㎡ 규모의 서동공원은 익산이 대표 테마로 밀고 있는 백제 무왕(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곳이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입상을 비롯해 십이지신상 등 98점의 조각품과 분수대, 잔디광장과 미륵광장, 수변광장, 야외무대 등이 있다. 현재 ‘서동축제’를 진행하면서 대형 LED 조명을 활용해 다양한 일루미네이션 조형물을 설치해 밤마다 장관을 연출한다. 어디서 본 듯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디자인은 살짝 아쉽지만 조형물의 만듦새가 어설피지 않아 꽤 볼만하다.

공원 곳곳을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여행길의 인생샷도 건질 확률이 높다. 원래는 28일까지만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방문객의 몰리면서 내년 2월 6일까지 연장했다.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조형물을 즐길 수 있는 서동공원의 ‘서동축제’. 찾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늘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미륵사지 석탑, 최근 SNS를 통해 익산이 떠오르는 명소로 각광받는 아가페정원의 메타세쿼이아 길 (위 사진부터) 익산 | 김재범 기자

●초겨울 정취 가득한 숲길, 아가페정원

최근 SNS에서 익산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로 주목을 받은 곳이다. 전라북도 제4호 민간정원으로 약 11만5702㎡에 달하는 규모다. 1970년 고 서정수 신부가 노인복지시설인 아가페 정양원을 설립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자연친화적인 수목정원을 조성했다. 2021년 3월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

현재 메타세쿼이아, 섬잣나무, 공작단풍 등 17종, 1416주의 수목을 갖추고 있

립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자연친화적인 수목정원을 조성했다. 2021년 3월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

현재 메타세쿼이아, 섬잣나무, 공작단풍 등 17종, 1416주의 수목을 갖추고 있

다. 상사화 꽃길, 단풍나무길, 밤나무, 포털가든, 은행나무 산책길, 포털가든 등 곳곳마다 정갈하게 다듬은 숲길이 인상적이다. 숲길을 여유롭게 거닐며 감상한 초겨울 정취를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딱 맞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500여 그루가 줄지어 서있는 40여m 구간이 최고의 인증샷 포인트로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다.

●“갈 때마다 새롭다” 미륵사지

사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오래전부터 익산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곳들이다. 그럼에도 이곳은 방문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느낌과 감동을 준다.

왕궁리유적은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를 담은 공간이다. 1998년 사적 제408호로 지정되었으며, 인접한 미륵사지와 함께 최대 규모의 백제유적으로 꼽힌다. 미륵사지는 백제 최대 사찰로 30대 무왕(600~641년)에 의해 창건되어 17세기경 폐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건 당시 세워진 미륵사지 서탑(국보 11호)과 새로 지은 동탑, 그리고 석탑의 북쪽과 동북쪽 건물들의 주춧돌과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 1쌍(보물 236호)이 있다.

이 두 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찾는 계절마다 느끼는 감동이 늘 새롭다. 꽃망이가 바람에 흩날리는 봄날에 왕궁리유적을 거닐며 받았던 느낌과 겨울로 접어드는 이맘 때 내린 발판에 호젓하게 서있는 석탑을 보며 드는 정취가 다르다.

계절 외에 아침과 저녁나절의 느낌도 다르다. 미륵산을 배경으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있는 미륵사지의 석탑과 저물어가는 석양으로 말그레 물드는 탑의 모습이 저마다 다른 느낌의 감동을 전한다. 그래서 이미 한번 가봤다고 해도 미륵사지와 왕궁리는 다른 절기, 다른 시간대에 또 가보기를 추천한다.

익산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블랙야크-카카오, AI 물류시스템 구축

선진화된 물류 환경 조성시 월 32만 건 배송 가능

글로벌아웃도어기업 비와이엔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AI 기반의 선진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4일 서울 양재동 블랙야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블랙야크 정승필 사장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가 참석했다. 양사는 물류 비즈니스 모델 확대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에서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은 블랙야크 물류센터의 B2C 물류 운영 노하우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물류 생태계 플랫폼을 결합해 인공지능 기반의 효율적인 물류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진화된 물류 환경이 조성되면 현재 블랙야크의 양지 물류센터는 월 32만 건의 B2C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로 거듭나게 된다. 향후 블랙야크 물류센터와 비즈니스 플랫폼은 패션업에 진입하는 SME(중소사업자)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에듀윌 등 8개, ‘근로자 휴가지원’ 우수참여기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1만1000여 기업 중 우수참여기업 8개를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에듀윌과 엘아이씨티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은 에이치엔드림, 타이드스퀘어, 제이엠테크, 이문매드, 브라더스비 주식회사, 토마토어린이집 등이 선정됐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20만 원), 기업(10만 원), 정부(10만 원)가 공동으로 적합한 비용을 근로자의 국내여행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롯데호텔 서울, ‘머스트 비 스트로베리’ 프로모션

롯데호텔서울은 호텔의 시그니처 디저트 프로모션인 ‘머스트 비 스트로베리’(사진)를 업그레이드해 12월 4일부터 내년 5월 8일까지 주말에 진행한다. IKA 세계 요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나성주 제과장이 기획한 딸기 디저트로 구성했다. 테이블당 웰컴푸드 3종, 디저트 22종, 음료 2잔을 제공한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물감을 연상케 하는 튜브형 패키지로 유명한 포르투갈 잼 브랜드 메이아 두지아(Meia-Duzia)의 물감잼과 초코 스프레드, 팔레트로 구성된 셀프 드로잉 키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드디어 스키시즌 개막”…하이원 스키장 12월3일 개장

개장일 앞당기고 영업시간 확대
‘안전스키’ 위한 방역시스템 가동

강원도 정선 하이원 스키장(사진)이 12월 3일 21/22 스키시즌을 시작한다. 하이원 스키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아테나Ⅱ, Ⅲ 슬로프를 오픈한다.

지난해보다 개장일을 일주일 앞당겼다. 영업시간도 확대했다. 주간영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2시간의 정설 휴식에 이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운행을 한다. 슬로프는 선호도가 높은 코스 중심으로 12면을 운영한다. 리프트는 자유롭게 시간선택이 가능한 시간제(3·4·5·7·종일권)를 도입했다.

하이원은 개장 후 ‘안전스키’를 최우선 목표로 방역시스템을 가동한다. 모든 고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체온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주요 동선에 열화상 카



메라와 자동발열체크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이밖에 리프트권 무인발권기 12대 설치, 정맥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시즌권자 비대면 본인인증 등을 통해 고객 밀집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하이원은 올해도 눈 테마파크 스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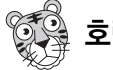
우월드를 운영한다. 이번 시즌에는 스노우월드에 있던 튜브썰매 시설을 마운틴 베이프로 옮겨 운영한다. 하이원 워터월드도 즐길 수 있다. 실내 슬라이드 기구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데풀, 스파 등을 운영한다.

하이원은 스키시즌에 맞춰 다양한 패키지 상품도 내놓았다. ‘스키 올인원’ 패키지는 객실, 리프트권, 장비렌탈, 식사를 한번에 해결하는 상품이다. ‘오픈기념 특별 패키지’도 선보인다. 오픈일부터 3일간 가능한 상품으로 정상이 대비 최대 65% 할인한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26일 (금) 음력: 10월 2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당장은 괴롭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험악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감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망신수가 따를 수 있으나 횡재수가 있다.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쟁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출장 등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현실을 망각하는 날이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나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피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웅담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감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었다. 언행에 극히 신경을 써야한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합부로 인간됨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는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운을 갖게 된다.	어떠한 위험·장에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학업,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고집을 버리고 사랑과 협조에 마음을 쓸 때다. 상대와의 의견이 전혀 다른 날이니 겸손한 자세로 중용을 얻으면 길함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자기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언행에 신중을 가하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1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숙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